

地方稅政의 效率화를 위한 筆地中心 土地情報시스템(PBLIS) 活用 方案

김 상 수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I. 서 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류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무형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부상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든지(anyone), 원하는 것(anything)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21세기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생활 영역이 인터넷 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時空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e-Government)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대민 서비스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990년도에 土地와 林野臺帳의 전산화를 이미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자지적의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전산시스템은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망을 통해 토지대장의 열람·발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 공직자재산자료조회·조상땅 찾기운동·공시지가 및 과세자료 등 행정의 기초자료제공 등이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대장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LIS, GIS, UIS 등 도형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1999년말